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들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월간 리더스(LEADERS) 2018년 8월호에 장세호 총재의 표지 및 인터뷰 기사, 그리고 국제로타리3650 지구를 홍보하는 이미지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장세호 총재의 취임에 즈음하여 로타리 봉사정신과 3650지구의 2018-19년도 운영철학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재편집하여 전재(轉載)합니다. <편집자주>



국제로타리 3650지구(서울) 장세호 총재 변혁을 이끄는 지도자는 시대적 위기의식과 비전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의 소아마비 박멸을 선언했다. 아직 2~3개 국가에서 소아마비 발병이 몇 건 보고되고 있으나 곧 지구상에서 소아마비가 완전히 사라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소아마비 퇴치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로타리(Rotary)다. 1905년 미국 시카고에서 결성된 민간 자선·봉사단체 국제로타리는 약 30여년 전부터 소아마비 퇴치 활동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로타리가 백신 지원 등 소아마비 퇴치에 쏟아 부은 돈만 약 16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가 설립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도 심장마비 퇴치를 위해 로타리에 거액을 기부한 바 있다. 200여 개국 약 123만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국제로타리는 한국에 19개 지구로 형성된 6만7천 명의 회원들을 지니고 있다. 그 중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서울 3650지구의 장세호 신임 총재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는 수십 년 종사해온 미국 IBM, GE, ITT, XEROX 같은 글로벌기업들의 혁신경영체제를 바탕으로 이제 로타리와 우리 사회가 함께 가야 할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의 길을 제시했다.

3650지구 총재뿐만이 아니라 국내 19개 지구 총재단의 회장이자 역대 419명 한국 총재들의 단체인 한국로타리 총재단의 부의장이기도 한 장세호 총재는 신임 총재로 취임하면서 '회원 1천 명 증가, 백만 불 재단 기부' 등의 외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치적인 목표가 전부는 아니다. 물론 회원 수와 기부 액 등은 그가 달성하고 싶은 내부적 목표임은 틀림없으나 적어도 회원 수 늘리는 데만 급급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그가 진짜 추구하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봉사의 개혁, 그리고 '사회적공헌 기업'과 '사회적공헌 전문인'들이 다함께 협력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로타리를 통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가치중심의 진정한 시대적 변화와 뼈를 깎아내는 듯한 본질적 뉘우침이 없는 참다운 미래지향적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장 총재는 변화의 리더는 시대적 위기의식과 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변화의 팀을 구성하여 짧은 기간에 성공사례를 구축한 후, 변혁의 바이러스를 조직 전체에 퍼트려 지

속적 변혁의 문화를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시대적 변화를 모르는 이유

우리가 창 밖의 풍경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창문에 비춰진 나 자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장 총재는 자신이 로타리안(Rotarian)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로타리(Rotary)라는 자원봉사 조직은 이 험악하고 외로운 사회 속에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며, 사람의 마음을 더욱 순수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빛에 속한 조직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인도적 봉사와 사회적 변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과 실천을 훈련시키는 인생학교와 같은 곳입니다.”라면서 로타리 역시 이제는 바깥 풍경을 바라볼 때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가치전쟁시대... 리더는 교육과 실천의 선두자가 되어

그는 로타리의 본질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 나갔다. “참다운 봉사조직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로타리안들과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스스로 감동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감사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라면서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고도의 물질시대에서 가치중심의 시대로, 중앙적 혹은 분산적 시스템을 뛰어넘어 자율적 시스템 시대로, 그리고 집단적 혹은 개인적 사회체제도 뛰어넘어 과거에 체험하지 못했던 조직들과 사람들 사이에 무경계적 교류와 거래의 쇼핑물과 같은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플랫폼시대로 옮겨가는 혼동과 불안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매일수룩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꿈꾸는 로타리 같은 조직의 사명은 더욱 커져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가치전쟁의 시대입니다. 가치전쟁의 무기는 진정한 가치교육과 참다운 실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의 결과를 수습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을 모아 다 함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고 그것이 곧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로타리 같은 위대한 업적을 지닌 봉사조직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복공장과도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며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미래를 위해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장 총재는 미래 사회를 개척하기 위해 우선 기성세대들이 먼저 “지금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신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가 미래를 개척하는 사회가 되려면 국가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문화, 그 외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과 부모들이 먼저 젊은 세대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라며 말을 이어갔다. 장 총재의 젊은 세대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은 대화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 그는 “변화의 일선에 서 있는 젊은이들 중에 일부는 기성세대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재래적 사회 시스템에 오히려 발목이 잡혀 사회적 노예가 되어버리기 쉬운 상황 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희망없는 미래를 바라보



면서 너무 쉽게 ‘흙수저, 금수저’ 논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라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젊은이들답게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주문한다.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이슈는 내가 어떤 수저를 갖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그 수저를 가지고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느냐에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라면서 “아무리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 수저로 먹지 못 할것을 먹고 사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역경을 이기고 일어나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가 기성세대에게 남기고 싶은 말 또한 예리했다.

“우리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그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창문 밖 풍경에 대해 물어보아야 할 대상임을 깨우쳐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꼭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HOW가 아니라 WHAT입니다.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온 시대와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그 어떤 ‘순수한 가치’뿐입니다.

또한 그러한 가치의 예로 생명과 소통, 자유, 평등, 평화,

사랑, 나눔, 공존 등을 꼽고 싶습니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며 실패를 해도 다시 기회를 주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는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드러나
그는 진정한 리더십의 진가는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더욱 드러난다고 강조한다.

“과거에는 훌륭한 리더의 정의를 그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지금같이 급변과 위기로 가득찬 이 시대의 존경 받을 리더의 정의는 뜻하지 않은 역경을 만나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라면서 “남들과 차별화된 지혜로운 리더가 되려면 다시 일어나면서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를 깨닫고 같은 이유로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며, 나아가 자신의 실수를 남들과 솔직하게 공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모두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좀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라며 자신의 리더십과 철학에 대해 언급했다.

장 총재는 또한 “나에게 있어 인생은 마치 문장을 이어나가 그 어떤 스토리를 써 내려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인생



로타리(Rotary)라는 자원봉사 조직은 이 험악하고 외로운 사회 속에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며, 사람의 마음을 더욱 순수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빛에 속한 조직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인도적 봉사와 사회적 변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과 실천을 훈련시키는 인생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의 문장이 그 어떤 역경으로 말미암아 막힐 때 마침표를 찍고 포기하는 대신, 만약 우리가 콤마를 찍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라고 문장을 계속 이어나가 아름다운 스토리의 엔딩까지 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라면서 로타리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로타리는 변화의 기회를 창조하는 곳입니다. 인생에 있어 마침표 대신 콤마를 찍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에 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벼랑 끝에 서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면서 버려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약이 없어 질병에 육신이 무너져가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어 서러움에 가슴을 웅크리고, 또 어떤 이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목이 타올라 할 수 없이 오염된 물을 계속 마셔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로타리안들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일을 할 때 저는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봉사자 자신이 감동을 받아 더욱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기적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치유가 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며, 세 번째 기적은 봉사의 대상자들이 추후 남에게 감동과 삶의 변화를 주는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감동의 기적들이 모여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로타리안이 된 이유

장 총재는 로타리안이 되어 총재까지 된 이유로 “로타리라는 글로벌 조직을 통해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123만 명 회원들과 함께 해낼 수 있고, 나아가 앞에서 언급한 인도주의적 봉사를 통한 감동의 기적들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타리는 세계2차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주로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전쟁에 시달려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평화의 꿈을 심어 주고, 전쟁으로 인해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전염병, 그리고 가족분해와 환경적 오염으로 상처를 입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봉대를 감아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로타리의 본질은 원래 문제의 결과를 어루만지는 것보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와 국제 사회의 각 전문분야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의논하여 해결 방법을 실천에 옮기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 로타리의 기초가 되는 ‘로타리 강령’을 보면, 로타리안(공무원, 기업가, 자영업자, 전문가, 등)들은 ‘봉사의 이상’을 기업과 조직, 그리고 자신의 삶과 일터로 가지고와 모든 활동분야의 기초가 되게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로타리안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업들이 되고 로타리안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직업인들이 되어 각각의 존재의 품위를 높이고 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라는 엄청난 주문입니다.

나아가 로타리의 4가지 표준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1. 진실한가? 2. 모두에게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4. 모두에게 유익한가? 등 항상 질문을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타

리는 분명한 목적(WHAT)과 방법(HOW)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로타리안들은 우선 급한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에 치중해 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아갈 미래사회는 물질시대를 초월한 가치중심의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봉대를 감아주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감동을 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변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첫째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조직을 먼저 변화시키고, 둘째 모두가 함께 좀더 조직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로타리에 속한 모든 사회적 지도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로타리의 사랑과 생명의 가치 중심의 봉사의 이상과 4가지 표준을 준수하면서 사회에 공헌이 되는 결정과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저는 국제로타리의 ‘세상에 감동을(Be the Inspiration)’이라는 2018-19 테마를 바탕으로 ‘초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자’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야 로타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로타리안 기업가들은 자신의 기업을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업으로, 그리고 로타리안 전문인들을 자신이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직업인이 되도록 노력하여 로타리의 새로운 역사(New History)를 써 내려가자고 모든 로타리안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읽는 비 로타리안들도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가담하여 모두가 함께 로타리안이 되어 봉사도 하면서 각자의 기업과 직업을 사회적공헌기업과 직업으로 바꿔 이 세상을 좀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리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장 총재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이요,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것이 로타리의 원초적 본질입니다. 만약 로타리가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통해 거듭나지 못한다면 새 시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 20여년간 국제로타리 회원수가 120만여 명에서 정체되어 있다. 특히 선진국과 대도시에서 그세가 위축되고 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로타리의 평균연령이 빨리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기성세대들이 선

호하는 안정된 조직 플랫폼보다는 좀 더 목적 중심의 순간적 결집과 단기적 성취를 가능케 하는 훨씬 더 회원 중심의 유연성과 스피드를 갖춘 오픈 된 플랫폼을 선호한다.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장 총재는 로타리가 세계 최대의 자원봉사 조직이며 소아마비 퇴치운동 등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긴급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도를 한국의 3650지구가 해내야 하고 또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로타리 같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1 봉사조직도(로타리는 지난 10년동안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평가기관인 Charity Navigator로부터 10년 연속 최고평점을 획득하였으며 1불을 기부하면 91센트가 봉사 대상자를 위해 쓰여지는 가장 효율적인 봉사조직임) 시대적 변화에 선두자가 되어 미래의 젊은이들을 포용할 수 없다면 결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어린 나이에 유학의 길을 떠난 후 그는 일찍이 미국에 유학을 가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카네기멜론(Carnegie-Mellon)대학에서 전기공학 학사, 콜럼비아(Columbia)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석사와 MBA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Fortune 50기업들인 미국 IBM, GE, ITT, XEROX 등에서 부사장까지 지낸 기업기획 및 개혁 그리고 국제 마케팅 전문가로서 활약해 왔다. 그는 로타리에 가입한 후 기적적으로 4년만에 명실상부 한국로타리의 중주지구인 국제로타리 3650지구의 차차기 총재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2018년 7월1일부터 신임총재로 부임한 후 419명으로 형성된 한국로타리총재단의 부의장이자 2018-19년도 19명 총재단의 회장, 그리고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이사, 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이사, 로타리코리아 이사, 그 외 주식회사 라이프맥스코리아의 회장 및 글로벌기업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또한 골프와 스키, 독서와 영화감상 그리고 작곡 등의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총재 이·취임식에 서는 ‘우리는 로타리안’이라는 로타리송을 작곡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장 총재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즐겨 읽는 책은 성경이라고 한다.

이유는 66권으로 된 성경 안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쓴 여러 저자들의 서로 다른 영성과 시각 등

다른 생각들이 집필되어 있고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한 주에 한 권 정도의 다양한 책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그의 좌우명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자.”이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이며 삶에 있어 순수성과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로타리는 어떤 조직인가?

로타리는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와 국제로타리재단(The Rotary Foundation)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계 200여 국가에 123만 명의 회원으로 형성된 35,774개 클럽들의 연합체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원봉사조직 중에 하나다. 한국에는 6만7천 명의 회원들이 19개 지구로 나뉘어 인도주의적 봉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에 위치한 3650지구는 한국의 최초지구로서 2100명의 회원들이 소속된 78개 로타리클럽들로 형성되어 있다. 그중에 장세호 총재를 배출한 올해 91주년을 맞이한 서울로타리클럽은 한국의 최초클럽으로서 1927년에 창립되었으며 한국의 유일한 영어로 미팅을 하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클럽이다. 국제로타리는 또한 18~30세를 위한 1만개의 로타렉트클럽들과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2만2천개의 인터랙트클럽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수없이 많은

리틀렉트라는 클럽들을 통해 봉사의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전파하고 실지 그들과 함께 이웃과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국제로타리가 다른 봉사조직들과 다른 점이 있다. 그냥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봉사는 물론 사회의 문제들의 해결책을 강구하여 함께 시정해 나가자는 것에 궁극적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로타리가 수없이 많은 세계지도자들을 배출해낸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제럴드 포드, 존 캐네디, 라놀드 레건 대통령들,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 닐 암스트롱, 천주교의 프란시스코 현 교황,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 오재경 전 문공부장관, 송인상 전 재경부장관, 그 외 여러 최근 장관들과 전 UN사무총장 반기문, 이동진 전 국제로타리회장 및 윤영석 전 대우그룹회장이자 로타리재단이사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법제, 정치계, 학계, 종교계, 문화계 등 다양한 사회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모두 로타리안들이다. 이들 모두가 꿈꾸는 로타리 비전적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이다라며 앞으로 미래사회는 사회적공헌의식이 없이는 기업이나 개인 모두가 성공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mail : sdavidchang@gmail.com) 📧

Profile

학력 사항

△미국 Charles Evans Hughes 고등학교 졸업, △Carnegie-Mellon University 전기공학학사, △Columbia University 컴퓨터공학 석사, △Columbia Graduate School of Business 경영대학원 MBA마케팅, △GE Corp. Financial Management Program(미국GE 재무관리과정수료 및 감사자격수료)

사회 활동

△1995년 미주 케네디컷 주 한인회 40대 회장, △1995~2000년 한국국제교류재단 상임이사(The Korea Society), △대통령 직속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전 미국자문위원, △미국장로교단 3개 교회창립, △커뮤니티 및 국제선교봉사활동, △한국기독교산업인회 CBMC 경영이사, △한국도형심리 상담학회 수석이사, △글로벌기업마케팅 및 혁신자문 경력 사항
△미국 IBM Corp. 소비자 및 대형컴퓨터본부 부사장 (1993년~2000년), △미국 XEROX Corp. 본사 기획실 전무이사 (1988년~1993년), △미국 NYNEX(전 AT&T, 현Bell Atlantic) 마케팅 및 벤처개발 전무이사, △미국ITT Telecommunication Corp. 텔레컴뮤니케이션 마케팅이사 (1982년~1985년), △미국 BIZBANG GROUP USA 비즈뱅크 회장, △CITICO Holdings 시티코홀딩스 회장, △BIZ&LIFEMAX 비즈앤라이프맥스 회장, △㈜라이프맥스코리아 회장(현재)

전문 분야

△기업경영 혁신, △글로벌 마케팅, △벤처개발 및 창립, △기업컨설팅 및 교육 △행복학 강의



3대 총재(이순동 직전, 장세호 현, 박수부 차기)



총재단 기념촬영